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진행

전당, 전국, 전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 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 나가고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의 운영집행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풍모, 사업방법을 제일선에서 따라배우고 구현해야 할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일군들속에서 발로된 비당적행위와 특세, 특권, 판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비판되고 그 엄중성과 후과가 신랄히 분석되었다.



내각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이미 세워준 사업체계와 질서대로 전염병이 들어올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봉쇄하는 것과 함께 검병,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형세와 조건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방역사업을 짜고들어 올해의 투쟁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지키는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사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실천에 옮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당중앙의 분석과 립장에 대하여 천명하시주 계기된 비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행위들에 강한 타격을 가하신 다음 모든 당일군들과 당조직들이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자기 자신들과 자기 단위들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걸잡을수없이 확산되고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류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비루스감염증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복기도 불확정적이며 정확한 전파경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부족한 조건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 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한 련관기관들은 전염병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취해진 선제적이며 강력한 수준의 방역적대책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시급히

우리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 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증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28일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과 화력
타격능력을 판정하고 군중
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
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
대,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크
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에 오르시여 훈련
을 지도하시였다.



혁명무장력의 드림없는 의
지와 영웅적전투정신이 남
김없이 과시된 훈련은 경
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리고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
세를 갖추고있는 군중부
대들과 전선과 동부지구 방
어부대들의 전투력에 대
하여 감탄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체 인
민군인들에게 전투적 인
사를 보내시고 최고사령
관의 특별감사를 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
실한 인민군대가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
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
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
진을 불패의 군력으로 확
고히 담보해나가기라
는

무장하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하늘땅을 뒤흔드는 천둥같은 폭음을 존엄높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와 인민을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일당백사상으로 튼튼히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온 인민군인들은

터치며 목표점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무적의 총창으로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정면돌파전사
상을 별적의 총창으로 받들어나
갈 불굴의 혁명의지가 활화산
처럼 분출되고 일당백전투정
신과 훈련혁명의 불길이 전
군에 휘몰아치고있는 격동적
시기에련일 전투력강화의 포
성이 하늘땅을 뒤흔들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
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
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
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
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
켜올려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
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훈련
장에 모시고 포실탄사격
훈련을 지도받게 된 전선
포병들의 가슴가슴은 인
민군대 전투력강화를 위
해 이처럼 마음쓰시며 몸
소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포병싸움 준비
의 진로를 밝혀주시신
강철의 령장의 위대한 손
길아래 필승불패의 전투
대오로 자라난 자기들의
전투력을 이번 훈련에서
도 남김없이 과시할 열
의로 들끓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화력타격
훈련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격
개시명령이 구분대들에
하달되자 전선장거리포
병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
문을 열었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
한 폭음속에 섬멸의 방
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대
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훈련에 참가한 전선장거
리포병들은 불타는 애
국심을 별적의 포신마
다에 만장약하고 조선
로동당의 일당백사상
으로 무장하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온 훈련
의 나날 자기들이 런
마해은 명중포사격술
을 자랑차게 과시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장거리포병들이
그 어떤 정황에도 신
속하게 대응하여 자기
의 화력전투임무를 완
벽

하게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는데 대
해 대만족을 표시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의 가장 열렬
한 애국심은 비가 오
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훈련장에 뿌리는 땀방
울에서 표현된다고 하
시면서 전군의 전체
장병들이 목숨보다 소
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해나갈 철석의 의
지와 불타는 조국애를
간직하고 훈련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
으켜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
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억제력에 의해 담
보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
게 철저한 군사대비태
세를 유지하고 자기
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받
들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훈련지도
를 받는 무한한 영광
을 지닌 전선장거리
포병들은 조국과 인
민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조국보위임무에 언
제나 충실하며 싸
움준비강화의 자
랑찬 성과로써 김
정은포병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전
투적사기와 열의
에 총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스스로 드러낸 매문집단의 추악상

여로부터 정의와 진실, 공정성과 객관성은 언론의 생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뉴스1》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언론본연의 사명을 제버리고 반공화국모략어론을 조작하고 류포시키는 나쁜 행위들을 벌이고있다.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면 돌파하는것은 한계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오랜 경제난과 제재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다》고 하면서 개헌을 제쳐내는 꼴을 보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보수언론의 추악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어 이 언론 아닌 모략집단들은 태를 묻은 고양이 있고 혈육이 있는 조국을 배반한 인간 쓰레기들까지 내세워 치졸하고 유치한 모략어론을 조작류포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정면돌파전에 산악같이 밀려선 공화국인민들의

의 역센 기상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부질없는 악다구니질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친개가 짖는다고 행렬이 멈추어설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모략과 날조를 생리로 하는 극우보수매문가들의 눈에는 절대로 제힘으로, 자기 손으로 인민의 높은 리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공화국의 밝은 현실이 제대로 비쳐질수가 없다.

모진 고난속에서도 수십년 동안 다지고자하는 무진막강한 저력과 잠재력으로 인민의 지상락원을 세우기 위해 일떠선 공화국의 존엄을 버리고 영성을 구역질하는 미친 나발질로 호러놓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을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모략적인 보도조작은 동족대결을 위해서는 그 무슨것도 가리지 않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추악한 면모만 세상에 드러내어 드러내는 결과가 될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무추동하지는 못할망정 거짓과 랑설로 여론을 기만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은 마땅히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혀야 할 더러운 매문집단이다.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역사와 거래는 신성한 언론의 본도를 저버리고 동족대결의 앞장에서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일삼는 보수언론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해두고있다.

김장호

남조선에서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있다.

바로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북선개입설》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단골손님》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최근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북이 언론들을 통해 저들에 대한 심판어론을 조성하는 등 4월에 진행되는 총선에 개입하려 하고있다》고 떠돌고있다. 지어는 《북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무슨 (도발)로 보수세력들이 재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거짓이 아닌 현실이라는것을 보여주려할수 있다》고 예측까지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떠돌어대고있다.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권력에 환장한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북선개입설》은 민심의 보수심판기운을 동족대결로 돌려 《총선》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상투적이고 유치한 반공화국모략국이다.

보수세력들이 선거철이면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규탄기운을 무마시키고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키려고 공화국을 걸고 갖은 모략소동을 벌려온것은 자라가 아는 사실이다. 과거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선거 때마다 《천안》 호침물사건과

《집단탈북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조작으로 《북풍》과 《안보위기》를 조성하려고 빌빌하게 책동한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도 보수세력들은 《총선》을 앞두고 물에 빠

널을 대신 오히려 동족대결을 조장하는 《안보》라벨까지 늘어놓으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있고있으니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을 역적무리들이다.

권력쟁탈을 위한 여야정배들의 나전투와 공과 《안보》소동으로 남조선민심을 기만하며 비루한 잔판을 부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역적무리들이 비렬한 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목에 걸린 울거미를 더욱더 조이는것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영일》하고 반공화국모략 《정당》까지 조작하면서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것을 공화국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도발과 우롱으로 여기고있다.

사태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달려온 보수세력들이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공화국의 언론들로부터 민족의 원수, 민족의 무리로 단죄규탄받는것이 무리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보수세력들이 《북풍》조작과 《안보》소동으로 남조선민심을 기만하며 비루한 잔판을 부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역적무리들이 비렬한 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목에 걸린 울거미를 더욱더 조이는것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선거때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

기자 지푸레기 잡는 격으로 또다시 우익보수적인 매문가들을 내세워 그 무슨 《선거개입설》을 류포시키며 막대한 정치적위기에 빠트어보려고 발버둥치고있다.

지금 은 남조선 땅이 《COVID-19》로 공포속에 잠겨있다.

이것을 해소하는데 힘은

도 같은 역겨운 선거판에 공화국이 꼬물만 한 흥미도 가질리 없다.

하지만 저들의 더러운 정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합부로 공화국을 입에 올리고 횡설수설하는것은 무과할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인간기기를 포기한 《탈북자》쓰레기들을

시궁창에서의 개싸움질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이 어떻게 하나 권력을 탈취하려고 분주당을 피우고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리승만이나 박정희, 천두

환, 로태우 등 《미래통합당》의 조상들이 권력탈취를 위해 썩어진 구호를 그대로 들고 현실에 썩어고이는것이 바로 보수세력들이다. 권력야욕에 환장한 보수세력들이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그러모으려고 꼭두각시정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조작하는 추악한 망동을 부린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세상에는 정당들이 많아도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는 《위성정당》은 오직 남조선에만 있다. 역시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정치판에서만 볼수 있는 희대의 정치판화이다.

김현일

민생은 내던진채 오로지 《국회》를 타고있기 위한 흥심에만 사로잡혀 《위성정당》까지 만들어내는 《미래통합당》의 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선거판은 시간 이 갈수록 더욱더 란장판으로 변하고 이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은 남조선이 《COVID-19》 감염사태로 아우성치고있는 때에 선거판을 권력쟁탈전의 더러운 시궁창으로 만들고 저마다 살겠다고 개싸움질만 하는 정치판에 민심은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굴종의 대가로 계속 차례지는 것은...

얼마전 미국은 3월말까지 올해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의 이루어지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미군 기지 로우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할것이라고 남조선당국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엄청난 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해마다 뜯어다가 못해서 더 짜내려고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무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할것이라고 통보한것은 미국의 강도적본성을 드러내보인것이다.

남조선정체가 침체에 빠져 들고 인민들이 생활고에 허

덕여어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쟁기려고 돈을 더 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내는 돈의 5배를 내라고 요구하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분격해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된데는 미국의 요구라면 덮어놓고 굴종하고 받아들여는 남조선위정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력대로 남조선위정자들은 미국의 강박에 썩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왔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로무자들을 인질로 방위비분담금종액을 강박하는 미국

의 행위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국이 안보의 미명하에 남조선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못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무자들을 인질로 《치사한 협박》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중역을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무자들도 미국의 횡포와 당국의 친미굴종책태에 분격을 표시하고있다.

남궁뎌

꼭두각시에 불과한 위장정당의 해산을 요구

남조선인민테드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민주로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일 《국회정론》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의석확보용으로 《미래한국

당》을 조작한데 대해 밝히고 이것은 국민들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미래통합당》의 비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570여개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미래한국당》 해체를 위한 《국회》 청원운동에 돌입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를 요구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미국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노동자들에게 대한 무급휴직통보로 협박하며 방위비분담금종액을 강요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을 궁

지로 몰아넣어 어떻게든 50억US\$를 받아내려는 야비한 술책이라고 논평은 밝혔다.

패권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조선국민의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의 폭력적행태에 대해 논평은 규탄하였다.

논평은 《정부》가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

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강탈의 통로로 되고있는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를 나설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세계평전전략을 수행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논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수호운동 투쟁 위한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2월 19일 6.15평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련합군사훈련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될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같은 날 전라북도지역의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루어진 《전북평화회의》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최소한의 신뢰조치이며 멈추어진 조선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들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자주와 평화의 정신에 따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것은 용당하다고 하면서 현 당국이 련합군사훈련을 반드시 중단하고 평화로 나아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미자주화를 실현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이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거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남조선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군사적소동이 벌어질수록 각계의 항의투쟁은 더욱 고조되게 될것이다.

리전봉

이다.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결정책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다짐한 것이다.

상전을 믿고 흰소리치기 잘하는 정경두파의 그러한 너두리에 리성있는 조선사람치고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이번 기회에 남조선국방부 장관은 사태매국에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하려들었던자들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하였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수모를 담은 구걸행각

서는 《동냥갔다 매맞고 온 방문》, 《실속없는 걸치레 시방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은 남조선 땅이 《COVID-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공포에 잠겨있는 때에 다양건너 미국에까지 찾

도 모르고 상전앞에서 《제재결의》 리행과 《최종적 이 완전하며 검증된 리해화》를 떠들다 못해 《단호한 대응》과 《강한 힘》을 제치며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릴 흉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것

아간 그의 행각모습은 그 자체가 미국없이 살수 없는 하수인의 궁색한 처지를 방불히 그려준것이었다.

더욱 가증스러운것은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제 처지

남조선에서의 《COVID-19》 전파실래, 감염자 6 088명, 사망자 41명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5일 16시현재 《COVID-19》 감염자는 6 088명으로, 사망자는 4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4일 16시 이후 467명의 비루스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된다.

이번에도 추가감염자의 대부분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에서 나왔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서 로인 34명이 한꺼번에 《COVID-19》 감염자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40대 여성이 확진받은 이후 남편과 7살, 12살 난 두 딸도 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것이 밝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와 련접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COVID-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곳을 감염병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

기로 하였다.

서울 통산구에서는 첫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하여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23개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사망자들도 모두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나왔으며 대부분이 당뇨병이나 치매증

등 질병을 앓고있던 고령의 환자들이다.

남조선주둔 미군가족 2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COVID-19》의 확대로 남조선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11곳으로 늘었

다. 특히 입국을 전면 금지한 나라와 지역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40곳이다.

오스트랄리아는 《COVID-19》 류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마스크구입을 위해 줄지어 서있는 남조선주민들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날강도적인 《을사5 조약》의 날조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헤아릴수 없지 않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일본이 천추만대를 두고도 갚지 못할 엄청난 죄악들이다.

지난 세기 초엽에 감행된 일본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 날조행위도 그러한 죄악들중의 하나이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일본이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것은 가장 포악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국권강탈범죄이다.

일본의 강도적본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탄핵하여 유린하면서 허위날조하고 일방적으로 공포한 불법무효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수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황궁앞 종로부근에서 광란적인 군사훈련을 벌려놓기까지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황궁에서 열린 이천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 체결을 둘러싼 논의가

합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로 날조되었다.

《을사5조약》 날조를 위해 서울일대에 수많은 침략군무력을 집결해놓은 조선침략의 피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는 황궁에 기여들어 고종황제에게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과 각 개항장에 일본인 행정관을 임명하며 외교사무를 도요에 이전할데 대해서와 일본의 송나없이 어떠한 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조약》 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고종황제가 그것을 단호히 일축하자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통할리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수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황궁앞 종로부근에서 광란적인 군사훈련을 벌려놓기까지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황궁에서 열린 이천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 체결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파탄되었던것이 다. 이 소식을 전달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강제에 명령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대장과 사토현병대장을 데리고 서둘러 황궁에 뛰어들어 이토 히로부미는 회의의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그리고는 강제로 저들이 날조한 《조약문》을 《결정》 짓게 하고 당시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공인을 훔쳐다 《조약문》에 찍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지나간 국제조약사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일본과 같이 나라들사이에 체결하는 국제적인 조약까지 무력을 발동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침략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기에 1935년의 《하바드 보고서》와 1963년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터크의 보고》 등에 《을사5조약》이 불법적이고 《절대적으로 무효》한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일본군대를 동원한 강압적결정》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

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어있다.

또한 《을사5조약》에는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으며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이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철저히 일본이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조약》이다.

일본은 불법무효의 《을사5조약》을 내 놓고 조선을 날강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하였으므로 근 반세기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피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켜왔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통치로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리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비통한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귀전을 치며 비범적이고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본의 죄행에 대해 날같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더욱 엄격히

공화국에서 《COVID-19》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 각지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초기부터 긴급 비상방역조치들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비루스전염병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기휘부가 조직되어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비루스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에서 검사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외국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연선지역에 대한 출장, 여행을 극력 제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될 때까지 국제열차, 국제항공 운송과 관광봉사를 근절하며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감시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속에서 심장병, 고혈압, 기관지염 등을 앓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관찰을 특별히 강화하는 한편 치료도 적극 따라가고 있다.

보건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격리자들과 격리장소들에 대한 위생조건보장과 의학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며

격리장소와 거리에서 나오는 오물과 하수, 그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고 있다.

신문과 TV,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과 보건기관들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들에서 《COVID-19》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감염증의 증상과 진단, 예방치료와 관련한 위생전선을 집중적으로 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방역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워나가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이러한 긴급방역조치들은 《COVID-19》와의 투쟁에서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로서 인민의 생명방어를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의료 및 방역전문가들도 방역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걸잡지 못하는 전염병이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것은 차단과 격리격폐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고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행동일치와 동원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공 화 국 에 서 는 《COVID-19》를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더욱 엄격히 실시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3. 8절의 유래

3월 8일은 전세계 근로 여성들의 국제적명절이다. 이날을 국제부녀절이라고 한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피펜 하브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 대회에서는 1909년 독점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남녀평등권

과 자유를 요구하여 과업과 시위를 벌인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같은 헌대성을 표시하고 그들이 투쟁에 일떠선 날인 3월 8일

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의 날로, 여성들의 평등과 권리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여성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사화

력사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 (2)

글 전철호, 그림 채대성

《내가 서툰을 본받으라고 한건 바로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지라는것이였지. 어머니 돌보라는 소리는 아니었다. 사람이 집안일에 빠지면 큰뜻을 이루지 못해. 이 어진 네가 산학에 달통해서 반드시 나라에 소용되는 인재가 되라는게다. 그걸 바라기에 이 예민 병이 나도 쓰러지지 않아.》

그때 강보는 그 말뜻이 잘 안겨오지 않아 어머니가 불만스럽게까지 하였다. 《어머니! 저도 이젠 열살을 넘었사오니 집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할 열매든지 할수 있다가요.》

《그렇게도 이 예미숙을 모르겠느냐. 지금 너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후날의 열출, 백날맞잡이다. 한초한초가 귀중한 이때에 열심히 글을 파고들지 않으면 후날엔 늦어. 더우기 산학은 깨우치기가 어려운 학문인데다 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년세가 높으시단걸 왜 생각 못하느냐. 선생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속대운줄 아느냐.》

그 말에 강보는 말이 막혀 있었다. 강보에게 글을 배워주는 백운동 글방선생은 산학에서라면 나라에서 일러주는 재사였다.

이제는 나이도 많아 국학(국자감의 후신, 성균관의 전신)에서 퇴직한 칠십로인인데 전국도처에서 그가 키운 제자들이 산학의 재주로 나라를 돕고있었다.

《어아, 너도 설경정의원에게 병을 보여서 그분을 알리지. 그분은 어진시절에 열심히 의술을 배워 10대에 명의가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노라 하는 명의들이 손을 댈고 나았은 이웃나라 임금의 병도 어쩔지 않게 고치며 이 땅 고려의 명성을 떨치지 않았느냐. 어머니들은 바로 그런 아들들을 두기를 원하는거다.》

강보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하고 목메어 불렀다. 강보는 저녁무렵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약구레미를 들고 집으로 가는 강보는 동지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것이 놀라웠다.

태사육에 임직한다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소설이며 대설의 절기들이 지나가버린것이었다.

그동안 절기가 그렇게 바뀐줄도 모르고 일한것이 자못 새삼스러웠다.

강보는 동대문군처에 있는 백운동어구에 들어서서야 집을 가까이했음을 깨달았다. 늘 아름다운 환구름이 떠돈

대서 백운동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강보네 집이 있었다. 사립문안에 들어서니 등불에 비쳐진 어머니의 모습이 안방문에 어려있었다.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절로 절음이 멈추고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지난날에도 병을 앓을 때조차 저녁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곤 하였다. 자기가 장가든 오늘까지도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 강보의 가슴은 쓰러졌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머님!》하고 부르니 어머니 김씨는 너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왔구나, 왔어. 그래 그동안 앓지는 않았느냐? 일은 다 잘되고?》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앉은 강보는 약구레미를 내놓으며 입을 열었다.

《제 말은 일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헌데 어머님병은 어떠하오이까?》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들어지면 누구나 오는 병, 가는 병 다 걸리기 마련이니 걱정말라.》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지 다시 물었다. 《정말 력서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

강보는 아들생각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어 웃음을 지었다. 《힘들게 하나도 없소이다.》

강보의 자신만만해하는 대답소리에 김씨는 가슴이 후련해졌다. 고생끝에 락이라더니... 이제는 떠나간 남편앞에 떳떳하고 할수 있을것이었다. 강보의 아버지는 강보가



5살 나던 해에 왜구와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아들을 꼭 훌륭한 산학자(수학자)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당부를 전해들었을 때 김씨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뜻대로 아들을 꼭 산학자로 키우리라 마음다지

고 하였었다. 허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집안의 가장이 없는 속에서 그것도 가난한 살림살이에 자식의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김씨는 출하추동 어느 하루도 번짐이 없이 샅뻘, 샅바느질을 해야 했다. 그 가공한 모습을 보다못해 가까운 사람들은 재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고 권고하기도 하였었다. 재가를 하면 살아가기 좋다는거야 왜 모르겠는가.

가 고사리같은 손가락을 짚아가며 백, 천을 거침없이 세는것을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었다. 그래서 세살때부터 셈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니 그 어린것이 두자릿수까지의 더하기, 더하기는 식은 죽 먹듯 하는것이였다. 군사로 나가면서 아버지는 이 아이는 보통아이가 아니니 이제 돌아와서 내가 직접 그의 글공부를 맡아시키겠다

그러나 산학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아들에게 자그마한 그늘 한점 지어주고싶지 않았기에 김씨는 결단코 한층 아들의 뒤바라지를 하겠다는 공심을 먹고 오정방의 한안골에서 여기 동부의 백운동 마을로 이사를 왔던것이였다. 강보는 8살때부터 글방에 다니였다. 뛰어난 스승의 슬하에서 뛰어난 제자가 난다는 말이 옳은것 같았다.

강보는 백운동 글방선생에게서 산학을 배운지 몇달이 안되어 김씨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날 저녁도 김씨는 아들을 애타게 글방에 나가 배운것을 물어보았다. 아들이 재하기(나누기)를 배웠다가 백일흔넷을 하나반으로 재할때 답이 얼마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제격 백일여섯입니다 하고 대답하는것이였습니다.》

속셈으로 답을 내려면 적어도 한 열댓쯤 세는 동안은 걸리겠지 했는데 웬걸 마치고 풀어놓고 기다린듯 답을 내놓으니 김씨는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빨리 답을 낼수 있었느냐?》

《거야 뭐 어려울게 있소이까. 백일흔넷 재하기 하나반을 덮어놓고 암산하지 않았소이다. 쉽게 답을 낼수 있도록 백일흔넷 승하기(곱하기)를 배워서 삼백마흔엿을 얻고 그것을 셋으로 재하기하였소이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8)

아시아유술계의 강자 김진아

평양체육단 여자유술선수 김진아는 2019년에 진행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맞대드는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왔다.

지난해 4월 아랍추장국권방에서 2019년 아시아-태평양유술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와 오세안주에 있는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큰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선수권대회의 여자 57kg급경기에서 그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전적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높고 로련한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와 맞대는 일본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몽골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에 올라온것으로 하여 우승후보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경기시작을 알리자 그는 자기의 특기기술을 발휘하면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신심있게 경기를 진행하였다. 연장전에서 그는 중동적인 공격을 들이대며 마침내 일본 선수를 이기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그는 2019년 국제유술련맹 후허하오터그랜드슬람유술경기대회 여자 57kg급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또한 2019년 국제유술련맹 아부다비 그랜드슬람유술경기대회 여자 57kg급경기에서 출전하여 적극적인 공격으로 맞대드는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그는 2019년 청도세계유술강자경기대회 여자 57kg급경기에서



맞대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기술적우세로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격을 들이대며 일본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세계유술너왕 계승회선수처럼 유술계의 최강자가 될 높은 목표를 안고 훈련에서 맘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단이다. 두공은 3익공바깥도리식이며 그 물림이 아주 치밀하다.

역사유적

백상루

다. 두공의 꽃가지형제공은 아래우에 편뿔봉오리를 제치있게 새겨 훌륭한 조각예술품을 이루었다.

에방우에 얹은 화반은 두가지 형태이며 그 하나는 한포기의 련뿌리가 퍼지면서

피어나는 련꽃을 형상한것이다. 지붕은 합각식이다. 건물안의 서쪽 5칸은 앞뒤에 각

각 두줄로 기둥을 배열하고 가운데는 기둥을 세우지 않았다.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여 집안이 장중하면서도 시원해보이게 하였다.

백상루에는 건물과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모두단청을 입혔다. 고려시기 백상루는 외채칠락자들을 반대하는 전투를 지휘하던 장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본사기자 김 철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의 력사기록에는 자신사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백선행이라는 녀인이 있다. 평양의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는것을 적었으나 환경성과의 협심이 매우 강했다. 가난한 집에 출가하여 일찍 남편을 잃고 16살에 과부가 된 그였지만 의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 살 길을 개척해나가기라 결심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꽃장사도 해보고 콩나물과 두부장사도 하면서 하루도 번짐이 없고 꾸준히 일했다.

그 과정에 점차 그에게는 저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그는 돼지도 사다 기르고 밤에는 벼를 짜고 무명방이라도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축적된 돈을 마구 망진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많은 자금

을 사회를 위한 일에 고스란히 바치였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겨 주변사람들에게 늘 불편을 주곤 하는 《술다리》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많은 돈을 희생하여 1908년에 든든한 석조다리를 만들어 세우게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다리를 《백선교》라고 즐겨 부르기 시작했듯이 다리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녀인의 비단결같은 마음을 찬양하여 그를 백선행이라고 불렀다.

그후에도 그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학교와 공회당건물도 지었고 평양의 광

성소학교와 창덕학교, 승의녀학교와 같은 학교들에 많은 토지들을 기증하여 계몽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김 철

유익이

마스크를 끼는 이유

팔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의사들은 수술할 때 왜 반드시 마스크를 끼나요?》

했다. 《거야 수술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면 환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느라라고 그러는거지.》